

초록번호 20-2

제 목	국 문	모 자동차 관련업체에서 발생한 손상과 산업재해보고실태		
	영 문	The Status of Injury and Report of Industrial Accidents at a Automobile Related Factor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수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Soo-Keun KIm Dongguk University Colla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분 야	환경	발 표 자	김 수 근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O ) → 완료 예정 시기 : 98년 9월			
<p><b>1. 연구 목적</b></p> <p>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손상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작업 중 입은 손상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산업재해로 보고되는 비율을 파악하고자 한다.</p> <p><b>2. 연구 방법</b></p> <p>1994년 5월 1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4년 동안 1개 자동차 관련 사업장의 의무실 자료를 이용하여, 년도별 월별 전체 근로자 수와 손상을 입고 의무실을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령, 입사년월(근속기간), 사고발생시기(년월일, 요일, 시간), 상해의 종류, 상해부위를 조사하였다. 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회상의 의무실만 이용한 경우, 병원통원 및 입원치료를 한 경우를 조사하고, 4일 이상 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진료비의 지불을 본인이 한 경우, 회사가 한 경우(공상처리) 그리고 산재신고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한 경우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p> <p>자료분석은 년도별 재해율(년도별 평균근로자 수 가운데 재해발생건수), 계절별 재해율(계절별 평균근로자 수 가운데 재해발생건수), 월별재해율(월별 근로자 수 가운데 재해발생건수)을 구하였다. 그리고 요일별, 일중 시간대별 재해건수를 구하였다.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상해부위 및 상해종류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 동일인이 5회 이상 손상을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연령, 근속기간, 작업부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손상환자 가운데 의무실만 이용한 경우와 병원의 통원치료 이용건수 및 입원치료 건수의 비를 구하였고, 손상환자중 공상처리와 산재신고를 한 비를 구하여 손상을 입은 근로자 가운데 얼마정도가 산재신고가 되는 지를 산정하였다.</p>				

### 3. 연구결과

조사기간 중 총 손상건수는 665건으로 년도별로 재해율은 1995년 43.3 %, 1996년에는 41.0 %, 1997년 38.9 %로 년도별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전체 사고건수에 대한 입사 후 발생시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인 92.8 %, 5년 이상이 9.2 %로 입사초기에 손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월별 손상발생은 4월과 7월이 다른 달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월요일, 목요일 수요일 순 이었다. 하루 중에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손상부위는 손과 손가락이 각각 17.6 %와 30.4 %로 전체 손상의 48.0 %를 차지하였으며 눈의 손상도 17.9 %이었다. 손상의 종류는 타박상이 35.6 %, 열상이 26.9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동일인에 의한 손상 발생빈도는 1회 이상 손상을 경험한 근로자가 2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회 이상 손상을 경험한 근로자는 41명(16.8 %)로 전체 손상 665건 가운데 이들에 의한 손상건수가 380건으로 57.1 %를 차지하였다.

5회 이상 손상경험을 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하여 20대 연령이 많았고, 근속기간이 짧았으며, 수공구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665건의 손상중 의무실만을 이용한 경우가 86.7 %, 병원에 통원치료한 경우가 11.7 %, 입원치료를 한 경우가 2.3 %이었으며, 이 가운데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는 12.7 %로 이었고, 산재로 신고되어 요양이 이루어진 것은 1.2 %이었다.

### 4. 결론

일개사업장에서 처치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약 40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손상은 입사 초기인 1년 미만에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었고, 동일인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산재예방에 활용하며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손상에 대한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전체 손상 중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85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산재로 보고된 것이 단지 8건밖에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산재통계를 위하여 산재환자의 보고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